

**재물을 빨리 모으려는 계획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들지만,
조금씩 모으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진다.잠언 13:11 - Ted Hildebrandt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작은 마을 편리지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네이트와 일라이자는 대학 졸업 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야심만만하고 열정적이었던 네이트는 화려한 투자 광고와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다는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했던 일라이자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일하며 월급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어느 여름 오후, 네이트는 렌트한 스포츠카를 타고 편리지로 돌아왔다. 디자이너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의 흥분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엘리야, 그 먼지 쌓인 낡은 철물점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지난달에 가입한 암호화폐 펀드가 벌써 내 돈을 두 배로 불렸어. 너무 늦기 전에 이 흐름을 타야 해!"

엘리야는 고개를 저었다. "읽고 싶지 않은 건 걸지 않는 게 낫겠어."

네이트가 웃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가을이 되자 네이트는 도시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옥상 파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한편, 일라이자는 얼마 안 되는 저축을 아버지의 철물점 옆에 딸린 묘목장과 온실에 조용히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사업의 매니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는 정직한 서비스와 일관된 품질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구축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그 후 2년이 지났다.

3년 차, 네이트는 예고도 없이 편리지로 돌아왔다. 그의 스포츠카는 사라지고, 앞유리가 금이 간 녹슨 낡은 세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장은 해진 청바지와 피곤한 눈으로 바뀌었다.

엘리야는 그가 철물점 밖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커피를 건넸다.

"무슨 일이야?" 엘리야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이트는 컵을 응시했다. "모든 게 무너졌어. 펀드도 무너졌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온갖 지름길을 다 쫓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 이제 빚만 잔뜩 졌어... 일자리도 없고, 저축도 없고."

엘리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소식 듣고 안됐네요."

네이트는 친구의 소박한 가게를 훑어 보았다. 가게 안은 최근에 지은 온실로 확장되었고, 뒤편에는 "어떻게 지었니?" 그가 물었다.

엘리야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일확천금 계획으로 번 돈은 줄어들지만, 조금씩 모으는 사람은 불어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벼락부자가 되어 일하며 모은 돈은 모조리 저축했죠.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모였어요."

네이트는 한숨을 쉬고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일라이자를 바라보았다. "도와줄 사람 하나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회계 처리 좀 도와줄 의향이 있다면 말이지."

다음 날 아침, 편리지는 두 남자가 나란히 약초밭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깹습니다. 스포츠카와 당장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훨씬 더 튼튼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로 꾸준한 노력과 조금씩 저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요하고도 지속적인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 속담처럼 말입니다. "

일확천금으로 모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조금씩 모으는 자는 불어난다"(잠언 13:11).

